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 ②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 ③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복을 받게 된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 ⑤ 잘못을 저지른 후에는 그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2. (물음) 여학생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A		F
	B	D	
	C	E	

[첫 번째 예]

		(가)	
	(나)		
			(다)

[두 번째 예]

- ① (가), (나), (다) 모두 살아남을 거야.
- ② (가), (나), (다)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거야.
- ③ (가), (나)는 살아남는 반면, (다)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 ④ (가), (다)는 살아남는 반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 ⑤ (다)는 살아남는 반면, (가),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3. (물음)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감각적 음치는 음의 고저·강약·박자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 ② 감각적 음치는 운동적 음치에 비해 자기 노래가 원곡과 다른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 ③ 운동적 음치는 인지한 음을 소리로 재현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 ④ 운동적 음치는 잘못된 호흡법이나 발성법을 바로잡으면 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 ⑤ 자기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 보는 것은 잘못된 음을 교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을 들은 청취자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학생: 외국에서는 논문뿐만이 아니라 과제물의 표절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구나.
- ② 연구자: 표절이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나부터 표절에 관대했던 태도를 고쳐야겠어.
- ③ 대학 교수: 이번 학기부터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겠어.
- ④ 일반인: 논문의 경우 표절을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있어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표절을 가려내기 쉽겠군.
- ⑤ 정부 관계자: 표절 시비가 붙은 논문의 표절 여부를 공정하게 가려낼 정부 기구 설립을 제안해야겠군.

5. (물음) 남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답변에 의견을 덧붙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회자: 축하합니다. 전문적인 댄스스포츠 선수가 아닌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승자: 처음에는 기본 동작과 스텝을 익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꾸준히 노력했더니 기량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공연 준비를 위해 프로 선수들의 여러 공연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다양한 동작과 기술을 배웠고, 그들의 안무를 참조해 어떻게 안무를 구성해야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을지 늘 생각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안무를 짰고, 결국 공연에 올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안무가 정해진 후 본격적인 연습을 하면서 코치의 평가를 받아 문제점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준비해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 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어휘의 수준을 조정한다.
- ②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글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 ③ 쓰고자 하는 글의 열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 ④ 글쓰기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글을 많이 참조한다.
- ⑤ 글쓰기에 필요한 기초 원리와 방법을 충실히 익힌다.

7. <보기>의 용례들을 바탕으로 '받다'의 의미 및 쓰임 상의 특성을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영화는 남자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았다.

ㄴ. 철호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태도가 바뀌었다.

ㄷ. 그녀는 가게에서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ㄹ. 아이의 어리광을 받아 주지만 하면 안 된다.

ㅁ.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목욕물을 욕조에 받아 주셨다.

ㅂ. 밝은 색 옷이 그에게 잘 받을 거야.

- ① ㄱ, ㄴ을 보니, '...에게/에게서 ...를 받다'의 문장 형식으로 사용될 때 목적어로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도 취할 수 있군.
- ② ㄷ, ㄹ을 보니,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사람을 목적어로 취해 '(사람을) 맞아들이다'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군.
- ④ ㅁ을 보니, '...을 ...에 받다'의 문장 형식으로 사용되면 '답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군.
- ⑤ ㅂ을 보니, 목적어 없이 주어와 부사어하고만 어울려 사용될 수도 있겠군.

8. 다음 논제를 보고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논제] 최근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가는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자의 상당수가 귀농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 보 기 >

I. 귀농을 하는 이유 ㉠

1. 침체된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
2. 은퇴자와 도시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터 제공

II. 귀농자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 영농 지식 및 기술의 부족
2. 농작물 재배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
3.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
4. 귀농 인구의 급격한 증가 ㉢
5. 토착 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한 갈등

III.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

1. 귀농자 대상 영농 지식 및 기술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2. 귀농자와 지역 주민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3. 귀농 연령이 은퇴한 중장년층에 편중됨 ㉤

IV.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귀농의 의의'로 수정한다.
- ② ㉡은 'II-1'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은 상위 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④ ㉣에는 'II-3'의 내용을 고려하여 '귀농자 대상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은 상위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9.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중 유형이 동일한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기 1 >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형사: 첫 서리가 내렸다.
2. 체언 단독: 고향 소식을 들었다.
3. 체언+조사: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4.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 보기 2 >

아침에 등교하다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길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지내던 ㉣때의 ㉤온갖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하다 보니 등굣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통계자료
스마트폰 이용자 중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률

대상	중독률
청소년	11.4%
성인	7.9%

(나) 신문기사
스마트폰은 언제 어느 때나 메신저,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여럿이 어울리는 대신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져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은 자기 통제력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완성되지 않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 인터뷰
1. “스마트폰 갖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재미 있는데요? 다양한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 스마트폰 중독 고등학생 -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놀이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는 같은 또래끼리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 청소년 문제 전문가 -

- ①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성인의 중독률보다 더 높음을 보이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야겠어.
- ② (가)와 (다)-1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음을 폐해로 지적해야겠어.
- ③ (나)와 (다)-1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 관계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해야겠어.
- ④ (나)와 (다)-2를 활용하여, 자기 통제가 어려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다)-1과 (다)-2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목적이 놀이에 치우쳐 있음을 들어 놀이 욕구가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일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11~12] 다음은 ‘생태 관광의 의미와 우리나라 생태 관광의 현실’에 대해 쓴 글의 초고이다. 이를 바탕으로 11번과 1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생태 관광’은 ‘생태학’과 ‘관광’이 ㉠ 혼합된 말이다. 생태 관광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 환경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생태 관광은 생태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생태 관광의 취지에 공감해 생태 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그리고 앞으로 생태 관광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생태 관광지가 많이 조성되어 생태 관광의 열기가 뜨겁지만, ㉣ 생태 관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관광객들이 생태 관광의 취지를 망각하고 ㉤ 자연 생태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 관광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살려야 할 때다.

11.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결합된’으로 고친다.
- ② ㉡: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어색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③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④ ㉣: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말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으로 바꾼다.
- ⑤ ㉤: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자연 생태를’로 고친다.

12. <보기>의 조건에 따라 표어를 만들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생태 관광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연의 의미를 드러낼 것.
- 의인법과 대구법을 활용할 것.

- ① 심신의 피로를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어머니
환경의 가치를 넉넉하게 가르쳐 주는 스승
- ② 우리가 지쳤을 때 찾아 갈 수 있는 쉼터
우리가 공부할 때 찾아 갈 수 있는 배움터
- ③ 자연은 따스한 위로를 해 주는 오랜 친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 ④ 우리가 자연에게 보내는 소중한 선물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는 자연
- ⑤ 자연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메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귀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쟈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니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 열구며: '얼리며'의 함경도 방언.
 * 불술기: '기차'의 함경도 방언.

(나)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몽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

(다)

㉠자새*에 북방 서리 무섭게 쳐도 남천에는 따뜻한 기운 통했지. 물과 구름 밖을 외롭게 날다가 잘못하여 그만 그물에 걸렸네. 남의 뜻에 따라 마시고 쪼며 갈 길 막혔음을 한탄하며 사네. 포구 모래밭 달빛 아래 잠들고 내 긴 물가 갈숲에서 놀았겠지.	紫塞胡霜重 南天暖氣通 孤飛水雲外 誤墮罽羅中 飲啄隨人意 棲遲恨路窮 浦沙眠夜月 煙渚戲蘆叢
㉡떼 지어 먼 바다를 건너고 줄 이어 먼 바람에 울었겠지. 사냥꾼 화살을 길게 시름하다 겨우 막요*의 활만 피했구나.	接翅飄遙海 聯行叫遠風 長愁弋者矢 徒避莫徭弓

본정도 다스림이 이와 같으니 태어날 때부터 본디 공평한 것 아니라네. 무리를 생각하는 게 너 홀로 인색했으니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 미물에 있어서 비록 모습 다르지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와 같겠지. 어느 날에야 여섯 나래를 길러 구름 하늘로 잘 날아가려나.	繕性能如此 生身本不公 念群渠獨畜 無患爾何豐 在物雖形異 懷鄉與我同 何當養六翻 好去向雲空
---	--

-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鴈]」 -

* 자새: 만리장성을 가리키는데, 기러기들이 여기서 여름을 남.
 * 막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부족.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통해 얻은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이 처한 상황과 관련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⑤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

14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에서는 함경도 사내인 '나'와 전라도 가시내인 '너'를 등장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① 1연에서는 '눈'과 '얼굴'의 모습을 통해 '너'가 고향인 전라도에서 겪었던 비참한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② 3연에서는 복간도까지 오게 된 '나'와 '너'의 슬픈 사연을 '가난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너'가 머나먼 전라도에서 복간도로 오는 장면이 '나'의 상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5연에서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너'를 위로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6연에서는 '사라질 계다'의 반복을 통해 '나'의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몸소 보거나 행했던 체험은 구체적인 시공간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체험에 대한 기억은 그 시공간의 상황이나 분위기와 결부되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새로운 시공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강하게 촉발되어, 과거의 체험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 ① 1연의 '지나게 되었다'와 '한 사내가 보였다' 등을 통해, 1연의 체험이 '나'가 직접 행하거나 보았던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1연의 어두운 '거리'에서 '회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가는 '건물'의 이미지를 통해, 1연의 '나'가 느끼는 시공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 ③ 1연의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의 상황으로 인해, '나'의 성찰이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2연의 '밤', '텅 빈 사무실' 등은, 2연의 '나'에게 1연의 시공간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어.
- ⑤ 2연의 '텅 빈 사무실'에 있는 '나'는, 1연의 '좁고 큰 방'에 있던 '사내'를 떠올리며 그 '사내'와 자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

16 <보기>는 '본성'과 관련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본성(本性)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바탕을 뜻한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물에 걸렸네'는 기러기가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 ② '남의 뜻'에 따라 사는 상황은 기러기가 '본성'에 맞게 살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낸다.
- ③ '모래밭'과 '갈숲'에서 노니는 모습은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에는 기러기가 '본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 이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난다.
- ⑤ '어느 날에야 여섯 날개를 길러 / 구름 하늘로 잘 날아가려 나'에는 기러기가 '본성'을 회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대상과 화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대상이 지니고 있는 아픔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과거에 대한 화자의 회상이, ㉡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 나타나 있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대상에게서 거리감을, ㉡은 화자가 대상에게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다.

18 ㉠~㉢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상적인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비유와 반복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표는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로,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그래서 정치학자와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즉 투표 참여 태도나 동기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투표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 밝힌다**. 투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등이 있다.

당정체성 모델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애착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정당에 대한 애착심은 유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정당과 내면적으로 연결된 귀속 의식, 즉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속감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가장 안정적인 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정치적 태도로 간주된다.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의 사회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계급, 인종, 종교, 지역 등이 정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서유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합리적 선택 모델은 유권자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투표 행위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정체성 모델은 유권자가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점을,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가 사회적 배경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에 의해 투표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합리적 선택 모델은 유권자도 결국 사회적 배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투표는 개인, 사회, 정치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모델에서는 투표 행위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② 사회학적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③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하는 '소속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 때 갖게 된다.
- ④ 투표 행위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 ⑤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20. 위 글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한 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구체적 현상을 분석한 후, 기존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된 상반된 이론을 단계적으로 소개한 후,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가설을 제시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후, 각 이론들의 상호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21.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일본의 한 선거에서 ○○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유권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유권자들의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 후보가 당선되었다.

(나) 영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따라 정당을 정하고, 이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노동당에, 중산 계급은 보수당에 투표를 하였다.

- | | |
|-------------|-----------|
| (가) | (나) |
| ① 당정체성 모델 | 사회학적 모델 |
| ② 사회학적 모델 | 합리적 선택 모델 |
| ③ 사회학적 모델 | 당정체성 모델 |
| ④ 합리적 선택 모델 | 당정체성 모델 |
| ⑤ 합리적 선택 모델 | 사회학적 모델 |

22.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돈과 지위를 지나치게 **밝힌다**.
- ② 그녀는 경찰에게 이름과 신분을 **밝혔다**.
- ③ 동생이 불을 **밝혔는지** 장지문이 환해졌다.
- ④ 학계에서는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애썼다.
- ⑤ 할머니를 간호하느라 가족 모두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현실주의는 20세기의 중요한 예술 사조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미술뿐 아니라 문학, 연극, 영화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합리적인 이성의 세계를 거부하고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하고자 애썼다. 그래서 이들은 꿈에 매혹되었고, 아이들의 동심과 정신이상자들의 광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초현실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등장한 초현실주의 예술가 집단은 '자동기술법'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기법은 떠오르는

생각을 의식의 통제 없이 가능한 빨리 받아쓰거나 그리는 것이다. 후앙 미로와 앙드레 마송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자동기술법을 통해 의식에 전혀 물리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다. 자동기술법은 의식의 작용이 멈춘 상태에서 붓 가는 대로 그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에서 실제의 사물이나 사람 혹은 풍경들과의 형태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바로 그림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이들 중에 ㉠ 예술가가 창조 행위의 주체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의식의 단순한 매개자가 되어 버린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 후에 등장한 초현실주의 예술가 집단은 경이롭고 낯선 이미지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물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시인 로트레아몽은 자신의 시구 중에서 '수술대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을 예로 들며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낯설고 놀라운 이미지들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감각에 강하게 작용했다. 마그리트, 달리, 텔보 등은 '데페이즈망'을 통해 사물과 풍경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이것들을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처럼 낯설게 표현하였다. '데페이즈망'은 어떤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어 뜻하지 않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기법으로, 이 집단에 속한 예술가들의 중요한 표현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의식의 간섭 없이 무의식을 표현해야 한다는 초현실주의의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지만, 의식 너머의 세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노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오브제, 콜라주, 프로타주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실험하였다. 하지만 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국 초현실주의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거의 와해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이후 현대 예술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동기술법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져 중요한 자취를 남겼으며, 데페이즈망 역시 현대 조형 예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23. 위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세운 계획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초현실주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 ②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두 흐름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③ 초현실주의의 두 흐름 속에 나타난 핵심 기법들을 중심 내용으로 삼는다.
- ④ 소개하려는 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수집한다.
- ⑤ 초현실주의 예술의 한계와 예술사적 의의를 함께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2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은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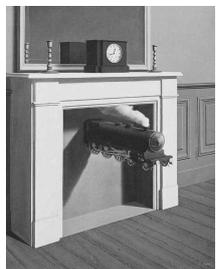
[A]



앙드레 마송, <자동태생>

[A]는 자동기술법으로 그려져서, 처음 볼 때는 뒤엉킨 선들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 다리, 손, 눈, 얼굴 등이 뒤섞여 자유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B]



르네 마그리트, <불박힌 시간>

[B]는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벽난로, 시계, 기차는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도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 ① [A]를 처음 본다면, 뒤엉킨 선들에서 인체 형태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겠군.
- ② [B]에 나타난 당혹스러운 이미지는 의식의 개입 없이 그려진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③ [A]의 제목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자동기술법의 특성과 관련이 있겠군.
- ④ [B]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꿈속의 광경처럼 낯설고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하였군.
- ⑤ [A]와 [B]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이후의 많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겠군.

25. ㉠이 '자동기술법'에 회의를 갖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 ② 의식에 물리지 않은 순수한 존재였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 ③ 예술가를 무의식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 ④ 무의식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⑤ 초현실주의 예술가를 당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침 점심을 나는 일주 걸렸다. 거지 같은 위를 채우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까지 누나가 있는 두부 공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나의 얼굴을 보는 일도 반갑지 않았지만, 거기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를 보는 일은 더 싫었다. 친구 태길이가 약이 오를 때면 매번 들먹이듯, 그가 내 미래의 매형이란 사실 때문에 나의 굴욕감은 더 컸는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누나는 왜 두부살의 네 오빠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리 한 짝을 전쟁터에다 내버리고 온 사내를 골라잡은 것인지 그 점이 나를 더 속상하게 했다.

저녁마저 거르는 날은 누나 쪽에서 나를 찾아왔다. 치마폭에 감추어 온 것들을 가만히 내 머리맡에 내려 두고는 잠자코 돌아섰다. 누나는 진작부터 나의 적의를 눈치 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때로는 내 이부자리 속으로 살머시 기어들어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두부 공장에서 밤일이 없는 때뿐이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해서 누나에 대한 나의 적의가 조금이라도 늦추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지난 겨울에 비해 누나는 확실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친구 두부살처럼 뽀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수증기가 자욱한 작업장에서 누나가 때때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있었다. 그 고된 노동과 천대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지극히 행복한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그토록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이제는 행복한 것이다. 친구 두부살의 집에서, 다리 한 짝이 없는 그 사내의 곁에서 말이다.

누나의 그 건강과 행복이 나의 적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적의를 넘어 어떤 혐오감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테면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였다. 그랬다.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서 맡은 바 있었던 그 녹슨 총기 냄새였다. 외삼촌은 다리 대신 팔 한 짝을 전쟁터에다 묻고 온 사내였던 것이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에게서도 분명히 그 냄새가 났다. 누나가 모처럼 내 곁에서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밤, 그자가 느닷없이 우리의 방으로 굴러들었던 것이다. 그를 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나는 기왕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나는 또 그 사내의 속절없는 처남인 셈이었다. 당당한 틈입자를 우리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외양은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영혼은 술에 젖어 마비돼 있었다. 그가 좁은 방 한가운데에 사지를 내던지고 철버덕 드러누웠을 때,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대갈통을 목침으로 까 주고 싶었다. 하지만 야릇한 것은 누나의 태도였다. 그녀는 다소 놀란 표정이긴 했지만 그러나 곧 침착해졌다. 쌀자루처럼 널브러진 사내의 몸뚱이로부터 젖은 옷가지들을 한 겹씩 차근차근 벗겨 냈고 머리칼이며 얼굴이며 몸뚱이 등 더 이상 벗겨 낼 수 없는 부분들은 마른 수건으로 정성 들여 닦아 내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녀의 거동만을 멍하니 지켜보았을 따름이었다. 아마도 누나는—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렬히 저항했다—정상이 아니다. 누나는 머리가 어떻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누나의 얼굴에 광기는 없었다. 거의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은, 지극히 담담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나 좀 도와 주렴.”

[A] 누나가 내게 말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누나와 그 사내에 대한 적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거부할 수가 없었다. 누나와 둘이서 간신히 그를 한편으로 옮겨 뉘었는데 그때 나는 비로소 사내의 의족을 보았다.

[A] 삼십 촛짜리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그것은 차갑고 이물스럽게 거기 놓여 있었다.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찢리듯 나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외삼촌을 기억해 냈고, 그리고 그에게서 말았던 저 녹슨 총기의 냄새를 다시 말았던 것이다.

[B] 밤새 땅을 파헤치느라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 판자촌 골목 어떤 지점을 파헤쳐도 온갖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엠원 소총에서부터 박격포탄에 이르기까지, 부러진 대검에서부터 시작하여 탱크의 캐터필러 조각에 이르기까지, 군번이 새겨진 알루미늄 조각에서부터 깨진 철모에 이르기까지…… 모양도 크기도 용도도 다양각색인 그 물건들은, 그러나 한결같이 뿔뿔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지난 전쟁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던 나는 몹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소리쳤다.

[B] “야, 여기다 여기! 바로 여기서 전쟁을 했던 거야…….” 그러고는 문득 깨어났다. 문살이 흰하게 밝아 오고 있었다. 사내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지만 누나는 단정한 차림새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C] “너 어디 아프니? 헛소리를 하게…….” 그러면서 누나가 내 이마를 짚었다. “치워!”

[C]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나는 뻥 소리를 치며 누나의 손을 떨쳐 버렸다. 그러고는 훌이불 자락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썼다. 갑자기 누나가 혐오스러워졌다. 그녀의 손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녹슨 총기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겼기 때문이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

26. 위 글에 제시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처음에 올 것은? [1점]

- ① 어머니가 숨을 거둔다.
- ② ‘나’가 외삼촌 댁을 방문한다.
- ③ 두부살의 오빠가 우리 방에 찾아온다.
- ④ ‘나’가 꿈에서 깨어나 누나의 손을 뿌리친다.
- ⑤ ‘나’가 두부 공장에서 웃으며 일하는 누나를 본다.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객관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체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늑손 총기'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품이 한국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늑손 총기'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늑손 총기의 냄새'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A]의 '늑손 총기의 냄새'는 '사내'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 ② [A]에서 '늑손 총기의 냄새'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내'와 '외삼촌'은 '나'를 둘러싼 비정상적 현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를 통해 '늑손 총기'가 전쟁의 상흔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B]에서 '나'가 전쟁과 관련된 꿈을 꾸 이후 '늑손 총기 냄새'는 [A]의 '사내'에서 [C]의 '누나'로 전이된다.
- ⑤ [A]에서 [C]로 갈수록 '늑손 총기 냄새'를 불러일으키는 '나'의 심리적 반응의 대상이 축소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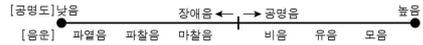
결핍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데서 비롯한다. 그로 인해 결핍의 상황에 처한 존재는 주변을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며, 그것은 주변에 대한 적대감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이질감과 적대감은 결핍에 빠진 존재의 내적 불안감의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핍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 ① 누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고 어머니가 술을 거둔 상황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나'의 결핍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③ 두부살의 오빠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나'에게 익숙하던 존재였던 '누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나에 대한 '나'의 맹렬한 저항은 누나를 잃은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누나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적대감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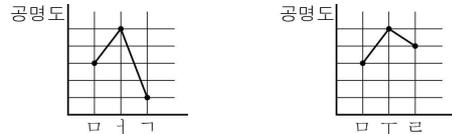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소리의 공명성은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동일한 길이, 강세, 높이로 소리를 낼 경우 공명성이 큰 말소리는 그렇지 않은 말소리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 입이나 코 또는 성문(聲門)이 더 많이 열리면서 소리를 동반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될 덜 받기 때문이다.
- (나) 음운 중에는 모음이 자음에 비해 공명성이 훨씬 크다. 자음 중에는 혀 주변이나 코로 공기가 흐르며 소리가 나는 유음(ㄹ), 비음(ㅁ, ㄴ, ㅇ)이 공명성이 크다. 혀, 치아, 입술 등에 의해 공기가 막혔다 터지거나 좁은 곳을 흐르며 심한 장애를 받는 마찰음(ㅃ), 파찰음(ㅈ), 파열음(ㅂ, ㄷ, ㄱ)은 공명성이 작다. 공명성의 크기를 측정해 공명도를 나타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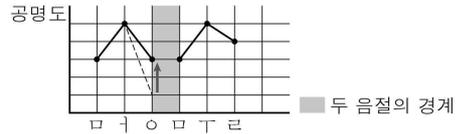
는데, 비음부터는 공명음, 나머지는 장애음이라고 한다.



(다) 우리말 음절은 기본적으로 음운들이 결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음운들이 각각의 공명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떡'은 세 개의 음운, 즉 초성에 비음 'ㄷ', 중성에 모음 'ㅊ', 중성에 파열음 'ㄱ'이 모여 음절을 이루므로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물'은 비음 'ㅁ', 모음 'ㅛ', 유음 'ㄹ'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떡'보다는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를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그런데 '떡'과 '물' 두 음절이 이어지면, 자동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선행 음절 중성에 있는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해 [멍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행 음절 중성의 공명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음운 변동을 거치며 선행 음절 중성의 공명도가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떡물'→[멍물]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는데, 이는 공명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에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음운이 변동되면서 음절 간의 공명도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떡물'처럼 장애음과 비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나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행 음운이 선행 음운보다 높은 공명도로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선행 음운인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면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높아지면서 음절 간 공명도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0.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공명성과 말소리의 특징
- ② (나): 음운들의 공명성 차이
- ③ (다): 음절 내에서의 공명도 변화
- ④ (라): 공명도 변화에 따른 음운 변동의 종류
- ⑤ (마): 공명도 변화에 따른 비음화 현상의 이해

31.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파열음은 비음에 비해 공명성이 작다.
- ② 공명성은 혀나 치아 등의 발음 기관에 영향을 받는다.
- ③ 모음은 공명도가 비음보다 높으므로 공명음에 속한다.
- ④ 장애음은 공명음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 ⑤ 음절 내에서 초성의 공명도는 중성의 공명도보다 높다.

32 위 글을 참고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는 → [㉠] 문답 → [㉡]

- ① ‘문’과 ‘는’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는’에 비해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② ‘문’과 ‘답’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답’에 비해 더 높은 공명도로 끝날 것이다.
- ③ 음절이 이어지면, ‘문’의 장애음과 ‘는’의 비음, ‘문’의 비음과 ‘답’의 장애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날 것이다.
- ④ ‘문는’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만큼 높아질 것이다.
- ⑤ ‘문답’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후행 음운의 공명도가 선행 음운만큼 낮아질 것이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석 상서의 딸 석난영과 진공의 아들 진숙문은 천생연분으로 혼인을 하게 된다. 이후 진숙문은 황제의 명에 의해 원치 않던 유매영을 첩으로 들이게 되는데, 유 씨는 석 씨를 시기해 모해한다. 이러던 중에 흥노가 중원을 침공하자, 진숙문은 대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이때 유 씨 정희 때를 얻었는지라. 송과와 함께 천 씨에게 계교를 물으니, 천 씨가 입에서 단약(丹藥) 두 개를 토하며 왈, “누런 것을 차에 타서 먹이면 정신이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니 이름은 망심단(妄心丹)이라. 진공에게 드리면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푸른 것은 음식에 섞어 먹으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로 변하니 이름은 소미단(消迷丹)이라. 이로써 석 씨를 없애리라.”

하고 망심단을 유 씨에게 주며 진공께 드리라 하니, 유 씨 크게 기뻐하여 계교를 행하고자 하니, 석 씨가 친히 조석(朝夕)으로 진공의 식사를 담당하여 받드니, 틈을 얻지 못하여 석 씨의 시비 준향을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달래고 재물을 후히 주어 계교를 가르치니, 준향은 간험(姦險)한 위인이라. 재물을 탐하여 계교를 행하니, 과연 진공의 총명이 점점 사라져 말과 행동거지가 무식(無識)에 가까우매 일가(一家)가 이상하게 여기었다.

(중략)

이러구러 맹하(孟夏) 십오일이 되어 날이 저물어 석식을 내을 때, 석 씨가 홀연 정신이 아득하여 신기 불편하며, 능히 공을 피하지 못하고 나아가 장파를 대하여 왈,

“첩이 홀연 신기가 불편하여 침소로 돌아가 잠깐 쉬고자 하나니, 청컨대 서모(庶母)*는 첩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식사를 살펴 주소서.”

장파 그 불편함에 놀라며 왈,
 “첩이 비록 지혜롭지 못하오나 부인을 대신하리니, 염려 마시고 편히 주소서.”

소저가 사례하고 침소로 돌아오매, 더욱 정신이 아득하여 상을 의지하고 인사를 수습하지 못하니 유모와 시녀가 불들어 구호하더라.

차시 유 씨 공의 부부를 모시고 곁에 있었던지라, 공이 석 씨 없음을 더욱 의혹하여 바삐 서현에 나와 밤이 깊어지기를

[A]

기다려 그 동정을 보려 하니, 탄식할 일이라!

공의 사광(師曠)* 같은 총명으로 어찌 석 씨를 의심하여 밤을 타 몰래 엿보리오마는 진실로 석 씨의 천정액화(天定厄禍)라. 때 정희 이경(二更)이 되자 시녀, 첩 등이 흩어지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공이 헤아리되,

‘모란정이 깊고 고요하니, 응당 그곳으로 모이리니 가히 살피리라.’

하고 가만히 모란정에 이르러 모란 포구에 은신하여 엿보니, 이윽하여 설란각으로 인적이 은은하더니 가까이 온 후 보니 석 씨와 준향이라. 비록 마음을 비취 볼 수 있는 조심경(照心鏡)의 안목이 있더라도 유 씨가 석 씨로 변신했음을 분간치 못할지라. 또 난간 위로 한 소년이 나오며 왈,

“옥인(玉人)이 나오기를 더디하고 정인(情人)을 기다리기 괴롭도다.”

하고 드디어 석 씨의 손을 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왈,
 “별 탈은 없으신지요. 생은 상사심병(相思心病)으로 황천객이 될러니, 천도(天道)가 살피셔서 진가가 북벌(北伐)하매 오늘 깊은 정을 다시 피리도다.”

석 씨 웃음을 머금고 대왈,
 “과연 우리 두 사람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노라.”

소년이 기뻐하며 왈,
 “그러하나 이는 만남을 오래 지속시켜 주지 못하니, 일찍이 한 자루 칼로 진가 부자를 없애고 그대와 함께 멀리 도망하여 백년을 동락(同樂)하니만 못하리도다.”

석 씨 대왈,
 “이 계교가 묘하니 독이 든 술로 가만히 없이하나만 못하리도다.”

소년 왈,
 “그 계교가 참 묘하니 가히 비밀히 행하게 하라.”

하고, 드디어 손을 이끌고 배회하며 음란한 말과 추한 행세 차마 보지 못할지라.

밤이 다 지나 금계(金鷄) 새벽을 알리니 소년이 바삐 돌아갈 새, 머리에 꽂혀 있던 잠(簪)*을 빼어 주며 왈,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어 애비의 정을 표하노라.”

석 씨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준향에게 명하여 옥란 한 쌍을 내어다가 소년에게 주며 왈,

“이것은 진가의 보배니 신물(信物)을 표하노라.”

소년이 받고 애뜻해하다가 돌아가는지라, 공이 세세히 목도하고 스스로 헤아리되,
 ‘귀신의 회룡이 아닌가.’

하여 온갖 생각이 떠올라 서계에 돌아와 처치를 어찌 할고 하며 심사 번뇌하더니 날이 밝았거늘, 내당으로 들어가 왕 부인에게 지난밤 일을 전하고, 석 씨 유모를 불러 석 씨로 하여금 친정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재촉하니, ㉠ 석 씨 이 일을 당하여 설움이 빼에 사무치되 조금도 원망함이 없고 다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오니, 숙혜가 백현을 안고 나와 뵈니, 백현의 나이 사세라. 자못 총명하고로 공의 처치함을 들은지라. 이에 석 씨의 소매를 잡고 슬피 울며 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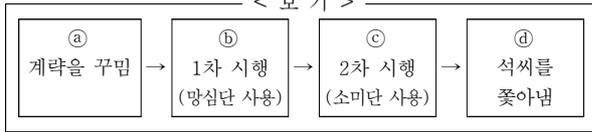
“어머니께서는 소자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시나뇨?”

하며 슬피 우니, 그 경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더라.

- 작자 미상, 「옥란빙(玉鸞聘)」 -

* 서모(庶母) : 아버지의 첩.
 * 사광(師曠) : 뛰어난 예지력을 지녔던 진(晉)나라의 음악가.
 * 잠(簪) : 관(冠)이 벗어지지 않도록 관의 끈을 꿰어 머리에 꽂는 물건.

[33~34] <보기>는 위 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33번과 34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33 위 글을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유 씨'가 '송과'와 함께 '천 씨'를 찾아가 이루어진 것이다.
- ② '유 씨'는 매수한 '춘향'의 도움을 받아 ㉣를 성공시켰다.
- ③ ㉡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진공'은 ㉢에서 '유 씨'가 '석 씨'로 변신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 ④ ㉣에서 '유 씨'는 '진공'으로 하여금 '석 씨'가 과거에도 '소년'을 만나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게 만들었다.
- ⑤ ㉢ 직후 '진공'은 '석 씨'의 죄를 벌하기 위해 ㉣를 이행하면 서도 '석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34 <보기>의 서사 전개 과정으로 보아,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제시된 '유 씨'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② ㉡로 인해 '진공'의 집에 나타난 가족 간의 관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 ④ ㉠에 따라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 인물이 등장하게 된 까닭을 밝혀 주고 있다.
- ⑤ ㉢와 ㉣에 이어 '석 씨'에게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35 ㉠에 제시된 '석 씨'의 심정을 표현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 ③ 동병상련(同病相憐) |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
| ⑤ 오매불망(寤寐不忘) | |

36 <보기>를 참조해 위 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전소설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회상과 함께 당대인이 지향했던 가치가 담겨 있다. 「옥란빙」은 유교 이념에 충실한 선인(善人)과 그렇지 못한 악인 간의 대립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다처(一夫多妻)가 허용되고, 가부장적 명령이나 결정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당대 사회의 모습과 함께 당대 사람들이 지향했던 충(忠), 효(孝), 정절(貞節) 등의 유교 이념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 ① 친히 조석(朝夕)으로 '진공'과 그 부인의 식사를 받드는 '석 씨'의 모습에서, 그녀가 효(孝)에 충실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② 자신의 목적을 위해 '춘향'에게 사주하여 시아버지 '진공'에게 약을 먹이는 데서, '유 씨'가 유교 이념과 동떨어진 악인(惡人)임을 알 수 있어.
- ③ '석 씨'의 말을 존중하고 '석 씨'를 염려해 주는 '장과'의 태도를 통해, 일부다처제가 당대 사람들의 유교 이념 수용에 미친 보편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 ④ '유 씨' 일당이 '석 씨'를 쫓아내기 위해 그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꾸민 데서,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⑤ '진공'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부당한 처사를 수용하는 '석 씨'의 모습으로부터, 가부장의 결정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석 집은 일 년 아니면 언제든지 도루 물려준다니깐, 원 종차* 서서히 어떡허든지 한하지만, (사이) 허! 인전 내일 하루 더 지나서 모른다 치면 벼락같이 (얼굴로 좌우를 가리키면서) 저걸 모두 경매하러 달려들지! (사이) 허기야 집안이 티김볼 하나 없이 폭 망하는 판에 세간 나부랭이가 그리 대수나마는,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딴단 말이나? 돈이나 아니나 많지두 앓구 겨우 이백 원에! (사이) 돈 겨우 이백 원에 그래, 경매꾼 놈들이 내 집 내정을 돌아서 세간을 모두 끌어내다가 놓구, 이진 암만*이요오, 이진 암만이요오 하는 꼴을 당해야 옳단 말이나?

고 씨 막말이지, 느이 아버님은 사뭇 자결을 하시러 드시리라!

형석 그러니, 그러니 말아투구나! 요행 참, 내일 해전까지만 형님이 무슨 도리를 해 가지구 내려오셔서, 친하 못 당할 그 창피두 꼬구, 눈 일사두 우선이나마 무사하게 규정을 짓구 하게 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 하는 날이면? 응? 만약 그렇지 못 하는 날이면? (길게 한숨) 어떡허면 좋으나 어떡허면!

정석 (덤덤하니 담배 연기만 뽑으면서, 무언)

형석 애야! 정석아?

정석 (마주볼 뿐, 무언)

형석 어떡허면 좋으나? 응?

정석 ㉠ 글썽요!

형석 글썽요라니! (사이) 이십 명 권술이 장차 목숨을 들었어야 할 논 그것마저 떠내려가! 세간은 경매를 당해! 집두 터두 없이 우리 집이란 건 폭 망해! 그렇게 돼두 년 팬 좋으나? 상관두 없구?

정석 상관이 있구 없구가 아니라, 걸 지가 어떡허나요?

형석 그야 넌들 별수가 없지! 없지만서두, 난 이렇게 애가 발구 간이 타는데, 년 분다치면 아-무 걱정두 없는 것처럼 그져, 태연하니,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정석 쫓! 그런 게 형님허구 저허군 다른 점이 아네요?

형석 다른 점이라니?

정석 (무언)

형석 (노여서) 년 속에 신화문두 들구, 사람이 다아 참 도저해서* 그러나 보다마는, 못생기구 어리석은 형놈이라고 그렇게 괘시하질랑 마라!

정석 괘시가 아네요!

형석 내가 이렇게 농투산이*루, 꿩꿩소처럼 일이나 하구 기우는 집안을 붙들구 싶어서 엘 썸 썸구 하는 것이 무슨 내한 몸뚱이나 내게 딸린 인간들만 위하자는 노릇이더냐? (사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안을.

정석 또오, 형님 공로나 정성을 모르는 것두 아네요. 아니구, 형님허구 저허군 다르다는 건, 형님은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한낱 가족에다가 두구서, 그 가족의 행복만을 최선이요 궁극의 이상으로 삼구, (사이) 그러자니깐 자연 온갖 정성이며 노력이 글러투만 쏠리는 것이구, (사이) 전 그런데, 가족이나 집안일에 대해선 도무지 경황이라는 게 없구, 해서 말하자면 등한하달까, (사이) 그게 그러니깐 형님허구 저허군 다아 참, 동태 동기간이로되 서루 다르다는 그 말씀요! 속담에두, 한낱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손구락두 길구 짧구 하다가 안 해요? 그렇다구서 무슨, 형님의 그런 가족 분위 이상이, 그런 포부가 구태라 나쁘다는 것두 아니구- (사이) 그러니깐 우열

이나 장단은 둘째 문제루 치구서 말씀해요!

형석 수신, 제가 연후에 치국, 평천하란다!

정석 위천하자는 불고가사*나라구두 일르잖았어요?

형석 그렇다구 글썽, 집안이 당장 눈앞에서 망하는 걸 번연히 보구 있으면서두, 태평으로 뉘서, 걱정 한 번 하는 법 없구! (사이) 그래야 옳아?

정석 걱정을 해서 면할 도리가 있다면야, 기왕 보기두 딱한 노릇이구 허니, 같이서 걱정두 해 드리구 하겠지만서두, 어디, 걱정으로 일이 피나요? 차라리 당하는 일은 당하구, 그 다음 일이나 잘 조치할 도릴 궁리하는 게, 훨씬.

형석 그래? 막말루, 일을 당한다구. (사이) 그 다음? (사이) 아니, 일을 당하구 나면 집안은 영영 망하구 마는 걸, 다시 도린 무슨 도리란 말이나?

정석 집안이 망하면 재산이나 없어졌지, 사람까지 없어지나요?

형석 ㉡ 그러니 말이여!

정석 ㉢ 그러니 말씀해요! 사람은 없어진 게 아이구서 죄다 그대루 처졌으니깐, 그 다음버튼 다시 살아나갈 도릴 마련해야 않겠어요?

형석 그래 글썽! (사이) 집안은 한순 견지 없이 망했는데 우쿠를 하니 이십여 명 식구가 무얼 먹구 살아가느냔 말이여?

정석 해쳐예요! 집안을.

고 씨 집안을 해치다니 그야 어디 될 말이나!

정석 알구 보면 아버님 고집으로 집안이 이 지경투록 됐습넌다! (사이) 진작에 집안을 세 포기면 세 포기 네 포기면 네 포기를 두옥두들 갈라서 해쳐왔어만 보시우? 그랬으면야, 그 중에서 한 포기나 두 포기 망했을 값이라두성한 포긴 성했지! 어디가 요렇게 물루 씻는 듯 말끔히 망해버리구 말아요?

- 채만식, 「당랑(螳螂)의 전설」 -

* 종차: 이 다음에.
 * 암만: '얼마'를 뜻하는 일본말.
 * 도저해서: 훌륭해서.
 * 농투산이: '농부'를 낮잡아 부르는 말.
 * 위천하자 불고가사: '천하를 돌보는 자는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

3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집안이 망하는 것은 '정석'의 뜻이라는 '형석'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는 집안이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는 '정석'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③ ㉡와 ㉢는 모두 집안이 망하면 가족의 분가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④ ㉡는 집안이 망하면 살아갈 도리가 없음을, ㉢는 집안이 망하더라도 살아갈 도리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⑤ ㉡와 ㉢를 통해 '형석'과 '정석' 모두 '아버님의 고집을 원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38. ㉠의 앞에 지시문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무덤덤하게
- ② 빈정거리며
- ③ 원통하다는 듯
- ④ 화가 난 표정으로
- ⑤ 호기심에 가득 차서

3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연극을 감상할 때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뿐만 아니라 예고된 사건이나 무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고된 사건이나 무대 밖의 사건은 무대의 사건이나 무대 위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관객의 심리와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해해 볼까요?

- ① 형식의 형이 집안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대 밖의 사건인데, 이는 형식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 ② 형식의 말을 통해 세간의 경매가 예고되어 관객들은 그 사건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련해 긴장하게 될 것 같아요.
- ③ 예고된 사건으로 긴장하고 있는 형식과, 이 사건에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정식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 ④ 극이 진행됨에 따라 형식과 다른 정식의 생각이 표출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긴장도 고조될 것 같아요.
- ⑤ 고 씨는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대 위의 인물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시대 과거는 왕이 유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과거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데, 시험의 최종 단계인 전시(殿試)에서는 왕이 직접 등용될 인재들에게 당대의 현안들을 책제(策題)로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시험을 치렀다. 책제로 제시된 현안은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이 시험에서 예비 관리들은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① 대책들을 글로 썼는데, 이 글을 ② 책문(策文)이라 한다.

책문은 왕이 제시한 책제에 답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짓는다. 책문은 “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臣對].”라는 말로 시작하여 “식견이 부족한 저희를 불러, 조금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될 말을 들을까 하며 시험을 내시니,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장황하면서도 공손하게 왕에 대한 찬사와 자신을 낮추는 겸사(謙辭)를 한다. 본문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책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말들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식의 겸사를 반복하면서 “신이 삼가 대답합니다[臣謹對].”라는 예를 갖춘 말로 마무리한다.

또한 책문을 작성할 때 글쓴이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에서 근거를 찾아 답한다. 선비들에게 유교 경전은 보편적 이념을 제시한 문헌이었고, 역사서는 그 이념의 현실적 성패를 기록한 문헌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문헌들을 인용하여 이상적인 사회는 어떠해야 하며,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었다.

조선 선비들은 유학을 익히고 인격을 수양하면서 경륜을 쌓고, 때가 되면 과거를 통해 자신의 포부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였다. 당시 지식인 계층이었던 선비들의 출사(出仕)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었던 것이다. 책문은 출사의 최종 단계에서 왕에게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학식과 포부를 마음껏 펼치는 장이었다. 따라서 책문은 때로는 당대의 시대적 현안을 고민하고, 때로는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려는 ① 선비들의 포부가 담긴 글이라 할 수 있다.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문의 개념과 형식을 설명하고 책문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책문에 반영되어 있는 다양한 시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책문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책문의 유래를 언급하며 책문이 출현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책문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41. <보기>는 책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
(나) 전하께서는 즉위하기 전부터 어질다는 명성과 소문이 자자해, 인심에도 부합하고 하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
(다) 마음을 간직하는 요령은 경건에 있고, 경건의 요령은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 소공(召公)은 성왕(成王)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경건하게 일을 처리하십시오. 경건하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는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라) 전하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풀꾼이나 나무꾼의 말도 성인은 가려서 썼다고 합니다.
⋮
(마) 전하께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삼가 대답합니다.
- 1507년 과거에서 제출된 책문 -

- ① (가): 책문의 서두에 나오는 표현으로, 앞으로의 내용이 왕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의미해.
- ② (나): 책문을 읽게 될 왕에게 찬사를 하고 있어.
- ③ (다): 역사적인 사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 ④ (라): 식견의 부족함을 들어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의견이 가질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 ⑤ (마): 왕에 대한 예를 갖추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42. ㉠과 ㉡가 <보기>와 같은 의미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이와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 기 >

㉠ = ㉡의 내용을 담아낸 글

- ① 감상: 감상문 ② 여행: 기행문 ③ 탐방: 탐방기
- ④ 토막: 토막글 ⑤ 회의: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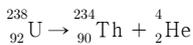
43. '책문'을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문은 일정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 ② 책문에는 글쓴이의 공손한 태도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 ③ 책문은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 ④ 책문은 권위가 있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에 근거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 ⑤ 책문에는 유교적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비들의 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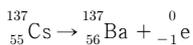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이지만, 원자 번호가 83을 초과하면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원자핵은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원자핵이 되는 현상을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한다.

알파 붕괴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질량수가 작은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 원소가 알파 붕괴를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각각 두 개씩 줄어들어,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인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된다. 92개의 양성자와 146개의 중성자를 가진 우라늄 238이 알파 붕괴를 하면 90개의 양성자와 144개의 중성자를 가진 토륨이 되는데, 이를 아래와 같은 핵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베타선을 방출하는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중성자의 수를 줄여 보다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베타 붕괴를 할 때에는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변한 다음, 양성자는 핵에 그대로 남고 전자만 외부로 방출된다. 이 경우 사라지는 중성자 대신 양성자가 하나 생기게 되므로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 55개의 양성자와 82개의 중성자를 가진 세슘이 베타 붕괴를 하면 56개의 양성자와 81개의 중성자를 가진 바륨이 되며, 그 핵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감마 붕괴는,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통해 새로 생긴 원자핵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안정된 상태로 변하기 위하여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마 붕괴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변화가 없고,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와 연동하여 발생된다. 즉, 알파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되거나 ㉠ 베타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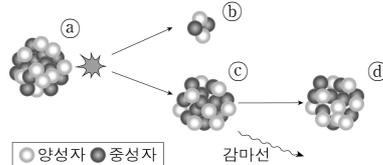
자연 방사성 원소는 납과 같이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일지라도 입자 가속기에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아 과학적인 탐구나 산업, 의료 활동 등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방사선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전리(電離)* 현상을 일으켜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 변이, 조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전리: 전하를 띠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으로 됨.

44.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자연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방사성 원소의 붕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방사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체에 유해한가?
- ④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는가?
- ⑤ 인공적으로 방출된 방사선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45. 다음은 어떤 방사성 원소의 붕괴 현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가 c가 된 것으로 보아, a는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이다.
- ② a가 c가 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b는 헬륨의 원자핵이다.
- ③ a가 c가 되면, 질량수는 원자 번호가 감소하는 것의 두 배만큼 감소한다.
- ④ c가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d로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a가 d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46.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이와 같은 방사성 원소를 지속적으로 실험하다가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류는 방사선의 유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원폭 피해 환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증가의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1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퀴리 부인은 방사선의 전리 현상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군.
- ② 일반인은 자연 상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
- ③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현상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군.
- ④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를 발견할 때 고속의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았겠군.
- ⑤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47. ㉠이 1회 발생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성자의 수가 줄어든다.
- ② 전자 하나가 외부로 방출된다.
- ③ 중성자와 양성자의 외부 방출이 없다.
- ④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다.
- ⑤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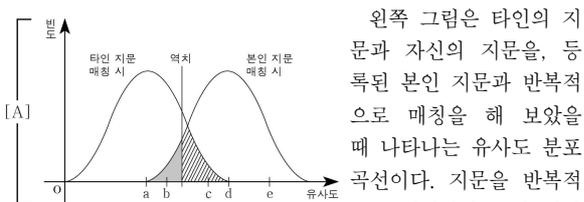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인식’이란 이용자가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 지문을 입력하면,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 영상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용자가 본인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문 등록’을 위해 이용자가 지문을 센서에 대면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 영상은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등록된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을 ‘정합 판정’ 과정이라 한다. 정합 판정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지문을 센서에 대면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 영상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두 영상의 유사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이용자의 지문을 등록되어 있는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한다.

‘지문 등록’과 ‘정합 판정’에서 지문의 특징을 추출해 내는 방식은 지문의 특징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미뉴샤 방식과 ㉡미뉴샤 릴레이션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미뉴샤 방식은 지문 선이 끊어지는 지점인 단점, 지문선이 갈라지는 지점인 분기점 등의 위치를 특징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미뉴샤 릴레이션 방식은 단점이나 분기점의 위치뿐 아니라 그 사이에 몇 개의 지문선이 지나가는가 하는 정보까지 특징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정합 판정 과정에서 본인 인증의 기준이 되는 유사도 값을 역치라고 한다. 역치를 설정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면 본인으로 인증하는 이유는, 아무리 본인의 지문이라 해도 지문 입력 장치의 상태나 지문 입력 시 손가락을 놓는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등록된 자신의 지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왼쪽 그림은 타인의 지문과 자신의 지문을, 등록된 본인 지문과 반복적으로 매칭을 해 보았을 때 나타나는 유사도 분포 곡선이다. 지문을 반복적으로 매칭하다 보면 매번 유사도가 같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곡선의 가운데에는 빈도가 높고 좌우는 빈도가 낮은 정규 분포 곡선을 보이게 된다.

그림을 보면 두 곡선의 중첩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타인의 지문을 자신의 지문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지문을 타인의 지문으로 인식하는 오류 구간이다. 그림과 같이 중첩 지역의 어느 한 지점에 역치를 설정했을 때 역치 이하의 회색 부분은 자신의 지문을 본인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본인 거부율’에 해당하고, 역치 이상의 빛금 부분은 타인의 지문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타인 수용률’에 해당한다.

오류율은 역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가령 본인 거부율을 줄이기 위해 역치를 낮게 설정하면 타인 수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타인 수용률을 줄이기 위해 역치를 높게 설정하면 본인 거부율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침입자 차단 장치나 용의자의 지문을 통해 범인을 가려내는 범인 식별 장치 등에서는 본인 인증을 엄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역치를 높게 설정하여 타인 수용률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48. 위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은? [1점]

- ① 지문 인식의 개념
- ② 역치를 설정하는 이유
- ③ 지문 인식 센서의 구조
- ④ 이용자 지문의 특징 추출 방식
- ⑤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 과정

49. ㉠, ㉡과 관련하여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보 기 >




■ : 단점

● : 분기점

(가) (나)

- (가)와 (나)는 특징을 추출하기 이전 상태의 지문 모형도이다.
- (가)와 (나)의 지문에서 단점과 분기점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 ① ㉠에서는 (가)와 (나)에서 ■와 ●의 위치가 특징으로 추출되었군.
- ② ㉡에서는 (가)와 (나)에서 ■와 ●의 위치와 지문선의 수가 특징으로 추출되었군.
- ③ 지문 등록과 정합 판정을 할 때, ㉠이나 ㉡으로 (가)와 (나)에서 지문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겠군.
- ④ (가)와 (나)의 유사도를 판정할 때 ㉡보다 ㉠을 사용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하겠군.
- ⑤ ㉠과 ㉡으로 추출된 영상 모두 역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와 (나)를 동일 지문으로 판정하느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군.

50.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것으로 차례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출입문에 지문 인식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자. 위 글의 그림 [A]에서 역치를 ()로 잡으면 본인은 항상 출입할 수 있겠지만, 타인이 출입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역치를 ()로 잡으면 타인의 출입은 완전히 막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출입이 제한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 ① a-b ② a-d ③ b-d ④ b-e ⑤ c-e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